

# 바이런의 혁명 후기적 감성

윤 효 녕

## I. 혁명 후기적 상황 인식

프랑스 혁명은 발발과 거의 동시에 당시의 영국 시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서 낭만주의 사조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블레이크(William Blake)와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같은 이른바 제1세대 낭만주의 시인들이 프랑스 혁명을 동시대적으로 경험하면서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복잡한 정서를 표현했다면, 바이런(George Byron) 같은 제2세대 낭만주의 시인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앞선 세대의 시인들이 남겨놓은 영국적 담론을 대하면서 나름대로 비판적인 혁명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한다. 블레이크와 워즈워스의 주된 관심사가 혁명의 발발과 진행 과정에 대해 거의 동시대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면, 바이런이 당면한 현실은 1804년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과 1814년 루이 18세의 왕정 복고라는 절망적 상황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혁명 후기적 상황에서 바이런이 앞선 세대 시인들의 혁명관과 비판적 대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혁명관의 정립을 시도하는 모습을 『병신의 변신』(*Deformed Transformed*)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부르봉 왕가의 왕정복고는 혁명의 명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 혁명이 현실적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혁명의 명분을 고수한다면 그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 등 적지않은 난제들을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제기한다. 우선, 혁명 후기적 상황에서 바이런이 의식한 바 당시까지 형성되었던 낭만주의적 혁명관의 문제점을 워즈워스의 경우를 통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워즈워스의 『서곡』(*The Prelude*)에서 다음 귀절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영국 낭만주의 시인들이 갖고 있었던 혁명 초기적 감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환희로서의 혁명 체험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은 환희로 전율하였다.  
프랑스는 황금 시대의 선봉에 서 있었고,  
인간성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다.(205)

But Europe at that time was thrilled with joy,  
France standing on the top of golden hours,  
And human nature seeming born again.

그러나 환희로서의 혁명 초기적 감성은 혁명의 공포화와 더불어 악몽으로서의 체험으로 변한다. 혁명세력과 반혁명 세력간에 엇치락 뒤치락하는 처절한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은 점차 과격성을 더해가고, 1793년의 「공안 위원회」에 이르면 급기야 혁명은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된다. “목에 목이 연달아 잘려 나가도 아직도 부족했다”(377)고 기술하는 위즈워스에게 이제 혁명은 환희로 체험될 수 없었다. 위즈워스는

오, 친구여! 그 당시 나는 낮이면 몹시 우울한 생각에  
 젖어 있었고, 밤이면 고통스러웠다.  
 잔학한 살륙의 마지막 북소리가 그친지  
 수많은 해와 달이 흐른 후에도  
 잠자는 시간마저 내게는 당연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끔찍한 절망과 복정의 환영들,  
 살륙의 도구들만이 내게 다가왔다(379)

Most melancholy at that time, O Friend!  
 Were my day-thoughts, — my nights were miserable;  
 Through months, through years, long after the last beat  
 Of those atrocities, the hour of sleep  
 To me came rarely charged with natural gifts,  
 Such gastly visions had I of despair  
 And tyranny, and implements of death: ....

고 슬회하는데, 이는 혁명의 공포가 단순히 역사의 한 시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악몽으로, 그것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극심한 “우울”과 “고통”을 안겨준 심리적 상흔으로 떨쳐 버릴 수 없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매니퀴스(Robert Maniquis)의 지적대로, 위즈워스를 비롯한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프랑스 혁명의 공포화는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촉발되었지만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한 지난 세기에는 야만적인 신들에게나 귀책되었던 태고적인 웅장적 공포를 생각나게 했다”(365). 낭만주의 시인들은 혁명적 폭력과 공포화를 물질 역사의 현실적 역학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 공포를 형이상학적인 초월적 공포로 인식하였다. 또한 혁명이 타락한 원인을 “인간의 무지와 죄”(Wordsworth, 383)에 돌으로써 인간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이라는 성서적 절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블레이크의 호랑이와 오크(Orc) 같은 신화적 상징들은 혁명에 대한 절대적 공포심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는 시인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초기의 환희로서의 혁명 체험을 변화시키는 “초월적 절망”(Maniquis, 370)이라는 또 다른 낭만주의적 정서를 형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낭만주의 시인들이 혁명에 대해 단순히 좌절에만 머물렀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혁명에 대한 좌절과 절망의 정서를 극복함으로써 혁명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 역시 낭만주의자들의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제1세대 낭만주의 시인들은 주로 혁명의 개념을 주관화, 내면화, 도덕화, 정신화, 상징화함으로써 혁명에 대한 절망을 극복하고자 한다. 위즈워스의 다음 시구는 혁명적 좌절에 대한 대안으로 그가 의지한 내면적 가치의 추구하고 혁명 개념의 주관화를 잘 보여준다.

외부적 인간이 온통 야만스런 모습을 띠 때에도

내면에서는 고결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 (449)

How oft high service is performed within,  
When all the external man is rude in show ....

물론, 인간의 내면적 정신 세계를 외부적 현실 세계와 분리하여 정신에 의존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워즈워스의 혁명관을 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는 없다. 또, 워즈워스의 그러한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그의 혁명관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에 빠져서도 안될 것이다. 워즈워스는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에 대해 때때로 아주 현실적인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가 이룩한 혁명 서술은 다른 어떤 낭만주의 시인의 경우보다도 더 현실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에도 사악한 구실로 단결한 바 있던 압제자들이  
이제는 악마들처럼 공고히 단결한 것이다.  
이처럼 사방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자극된 나라[프랑스]는 점점 광란의 도가니가 되어 갔다.  
소수의 죄악이었던 것이 다수의 광란으로 확산되어 갔고,  
지옥의 狂風인 것이 천국의 詠唱처럼 신성화되어 들려왔다. (375-376)

Tyrants, strong before

In wicked pleas, were strong as demons now;  
And thus, on every side beset with foes,  
The goaded land waxed mad: the crimes of few  
Spread into madness of many: blasts  
From hell came sanctified like airs from heaven.

공포정치에 주된 명분은 주변 반동국가들의 동맹과 공격으로부터 자유 프랑스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피트(Pitt) 수상 및 오스트리아의 코부르크(Cobourg) 사령관과 음모한 왕당파들을 처단한다는 것이 공포정치하에서 자행된 수 많은 처형의 주된 구실이었다. 혁명의 자국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영국을 주동으로 동맹한 보수세력 국가들의 위협이 결국 프랑스 혁명의 과격화를 초래한 궁극적인 원인이거나 적어도 그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워즈워스의 안목은 그와 같은 과격화의 책임을 혁명의 자체논리로 치부하거나 프랑스의 민족적 문제로 귀결시키는 단계보다는 훨씬 진전된 역사적 통찰력을 반영한다. 적어도 방금 인용한 구절에 나타난 워즈워스의 생각은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화가 불가해한 것이거나 신비스런 것이라기보다 명백한 역사적 원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워즈워스는 혁명의 공포화에 대해 현실적 역사 인식을 어느정도 보여주고는 있다. 그렇지만, 워즈워스도 역시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인 혁명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육신보다 우월한 영혼에 잠긴 채/ 감각에서 이상적 형상에 이르는/ 초월적 권능의 인식으로 지탱되는/ 영혼”(463)에 의존함으로써, 낭만주의적인 초월적 상상력의 범주에 복귀하고 만다. 블룸(Harold Bloom)은 상상력에 이르는 이와 같은 낭만주의적 과정이 블레이크의 경우 “오크”로부터 “로스”에 이르는 과정으로, 워즈워스의 경우 “타락한 자연”으로부터 “구원된 자연”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낭만주의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블룸은 그 과정

을 “이기적 자아”(Selfhood: 12)를 극복하고 “무욕의 자아”(selfless self: 16)에 도달하는 “변증법적”(9, 10, 12, 14, 20) 발전으로 여기고, 이를 낭만주의적 추구의 완성 단계, 또는 위대성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을 구성하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가운데서 외적 요인을 배제하고 내적 요인만을 특권시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과연 “변증법적”일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블룸이 낭만주의적 위대성의 요소라고 평가하는 바로 그 사항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낭만주의적 혁명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문제는 바로 블룸 자신의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메테우스는 추구의 초기 단계에 처해 있는 주인공겸 시인이며, 이때 그의 특징은 정치적, 사회적, 문학적 혁명에 깊이 관여하면서 유럽과 영국 사회의 제도적 정설들을 풍자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 공포의 위기를 겪고 난 후 본격적인 낭만주의적 추구의 단계에 이르면 진정한 인간형, 즉 상상력이 출현하는데, 이는 혁명적 행동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11)

“혁명적 행동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유리되어 있다”는 것은 혁명의 관념화가 비역사화를 초래한다는 문제, 그리고 혁명의 손발을 현실적으로 묶어놓는다는 문제를 시사하는 말이다(정작 블룸 자신은 이를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는 “무욕의 자아”를 성취하는 도덕적, 정신적 각성을 제일의 덕목으로 내세운 19세기 자유주의 사상이 소외된 민중의 정서를 제대로 포섭할 수 없었고, 또 반혁명 세력에 의해 구질서가 복고되는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도 제시된다.

바이런의 시대에 주조를 이룬 혁명 후기적 감성의 배경은 1794년 테르미도르 반동정부의 출현, 1804년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 1814년 루이 18세의 부르봉 왕정복고, 4자동맹에 의한 유럽의 분할과 강점, 1815년 신성동맹에 의한 제국주의 왕권세력의 대동단결과 침략전쟁 등 이른바 “(낭만주의적) 반동의 시대”(Thorslev, 446)였다. 관념화된 낭만주의적 혁명 이념과 현실적인 반혁명 세력의 득세라는 괴리에서 초래된 우울, 고통, 반항, 분노, 절망 등 당시의 암울한 시대적 정서는 바이런의 1814년 4월 14일자 일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은 바보들이 걸어가는  
흙먼지 날리는 저승길을 밝혀 주었을 뿐이로다.’

그러한 지난 날의 햇불에 대해서는 더 이상 日誌를 쓰지 않겠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나는 과거로 개처럼 돌아가느니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일지의 남은 책장들을 찢어 버리고,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쓴다 — ‘부르봉 놈들이 복고되다니!!!’ — ‘철학따위는 목매달아 죽어라.’ 물론 나는 내 자신과 인간을 경멸한지 오래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족속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 어리석었도다! 미치고 환장하겠도다.’ (Marchand, 257)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런이 당면한 과제는 혁명의 이념보다 혁명의 실천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일이었다. 그는 상징화되고 초역사화된 혁명의 이미지를 역사의 현실로 복귀시킬 절실한 필요에서 19세기 초의 낭만주의적인 관념적 혁명관을 비판한다. 이 논문의 다음 장에서는 미완성작 『병신의 변신』에 나타난 바 바이런이 혁명의 관념화를 비판하고 유물론적 역사관을 획득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바이런의 혁명성을 둘러싼 한계와 가능성의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병신의 변신』: 낭만주의적 혁명관의 비판

『병신의 변신』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822년 10월에서 1823년 5월에 걸쳐서 쓰인 미완성 작품이다. 『병신의 변신』을 올바른 맥락에 놓고 보려면 이 시기에 바이런의 반항정신이 지녔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부터 바이런의 작품들은 반항적이라고 평가받기는 했지만, 그의 반항정신이 초기의 다소 불분명했던 가면을 점차 벗어던지고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1816년 영국을 떠나는 사건 이후로 볼 수 있다.<sup>1)</sup>

『돈 주안』(*Don Juan*)이 나온 해인 1818년까지 비평가들은 바이런을 시적 반항아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이런을 관례적인 유형의 반항아로 간주했던 것은 분명하다. 바이런은 엄격하게 규칙에 따라 시적 반항의 게임을 했던 셈이다 ... 그는 비평가들이 낡은 방식과 가치관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와 더불어 나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수단인, 즉 보수주의 문학의 안전벨트가 되었다. (Martin, 149)

그러다가 1821년 『카인』(*Cain*)의 출판은 바이런의 급진성이 노출되는 계기가 된다.<sup>2)</sup> 이전에 바이런 작품의 출판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던 존 머리(John Murray)가 『최후의 심판날 진풍경』(*The Vision of Judgment*)의 출판을 망설이자 바이런이 그 원고를 당시의 급진주의 출판가 존 헌트(John Hunt)에게 주어 『자유』誌(*The Liberal*)에 실리게 한 것도 이때였다. 이는 종전의 보수주의 문인들과 정면적인 단절을 불사하고 급진주의적 입장에 서겠다는 작가로서의 의지를 표명한 계기로 평가된다.

러셀(Bertrand Russell)이 바이런의 반항 정신을 가리켜 “귀족적 반항 철학”(716)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동안 바이런의 반항성의 공적과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바이런을 가리켜 제이 워드(Jay Ward)가 사용한 “자유주의 계열의 귀족”(11)이라는 용어나 그레이드 버크너(Gred Birkner)의 “휘그파의 귀족”(7)이라는 평가도 근본적으로 러셀의 평가와 같은 맥락에 속한다. 필자의 식견으로 윌리엄 러딕(William Ruddick)이 바이런을 “영국의 자유주의적-급진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 바이런의 급진적 성향을 가장 높이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이 말도 바이런의 급진성을 휘그파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해보면, 바이런의 반항성 내지 혁명성은 휘그적 내지 자유주의적인 귀족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데, 필자는 바이런이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민중적 급진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이 논문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바이런이 휘그적 자유주의와 무관하다거나 그에게 그러한 면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편으로 그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작가의 전 생애를 한 가지 경향으로 일괄하는 단선적 평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변모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보면, 물론 단계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1) 이언 잭(Ian Jack)은 바이런이 『맨프레드』(*Manfred*)와 『해럴드 도령의 편력기』(*Childe Harold's Pilgrimage*) 제3곡을 쓸 무렵을 기점으로 바이런의 반항적 작품성향이 두번째 시기로 접어든다고 구분한다(71-81).

2) 바이런을 위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던 영국의 보수적 문인들은 『카인』이 출판되자 이 작품의 노골적이고 급진적인 반항정신에 대경실색하였다고 마틴(Martin)은 전한다(151).

말년의 바이런이 보여준 모습에서 이전의 모습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점들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왓킨스(Daniel Watkins)가 “『병신의 변신』은 사회 질서에 대한 급진주의적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1983, 27)고 평가하는 것도 바이런이 이 작품을 쓰던 당시의 작가적 맥락을 잘 간파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공 아놀드가 변신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곱사등이 불구자로서의 흉칙한 모습은 민중적 혁명 세력의 잠재적 폭력성에 대한 당시의 자유주의적 공포의 정서를 형상화한 이미지로서, 기본적으로는 블레이크의 호랑이,<sup>3)</sup> 워즈워스의 악몽, 퍼시 셸리(Percy Shelley)의 데모고곤, 매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스타인과 같은 맥락에 속한다. 대부분의 낭만주의 시인들의 경우는 혁명적 폭력 자체를 어쨌든 공포 이상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혁명적 폭력을 자유주의적 초월의 명제로 포섭하여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즉, “변증법적” 매개작용을 통하여 자유주의 이념이라는 궁극적인 동일성 속으로 순화되어야 할 잠정적 부정 명제로 민중적 역량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반면에, 바이런은 곱사등이 아놀드의 처지를 통해 영국뿐만 아니라 19세기 유럽의 사상적 주류였던 “자유주의적 낙관주의”(Russell, 716)를 비판하고, 아울러 민중에 대한 폭력화된 자유주의적 이미지의 부당성을 아놀드의 편에 서서 역설한다.<sup>4)</sup>

아놀드와 어머니 버싸(Bertha)의 관계는 자비로운 모성과 우호적 자연이라는 낭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키고 있다.

버 싸: 당장 나가라, 이 곱추야!

아놀드: 엄마, 난 곱추로 태어난걸 어떻게 해요!

버 싸: 나가라니까,

너 때문에 가위눌리는 악몽을 꿀까 두렵다!(Page, 605)

Bert. Out. hunchback!

Arn. I was born so, mother!

Bert. Out.

Thou incubus! Thou nightmare!

버싸는 아놀드를 탄생시켰으므로 아놀드의 기원을 이루는 셈이다. 모성으로부터 소외된 아

3) 프랑스 혁명을 호랑이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은 블레이크 이외에도 이미 1792년에 접어들면서 영국에서는 흔한 현상이었다. 1792년 1월 7일자 『런던 타임즈』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늑대와 호랑이보다도 더욱 위험하다”고 쓰고 있고, 존 윌킨스(John Wilkes)는 이때의 프랑스를 “원숭이와 호랑이들의 나라”라고 묘사한 적이 있는가 하면, 새뮤얼 로밀리卿(Sir Samuel Romily)은 프랑스를 “아프리카 숲속의 호랑이 공화국”에 비유한 적도 있다. 이와 같은 호랑이의 이미지가 혁명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영국내의 반혁명적 담론을 뒷받침해 준 것은 물론이려니와, 1795년에 에드먼드 버크가 자코뱅당원들을 가리켜 “늑대와 호랑이가 먹지만 실컷 먹고 나면 오히려 안전하고 암전하다”고 말한 데서도 계속된다(Paulson, 97-98). 워즈워스도 프랑스를 “호랑이들이 배회하는 숲”에 비유한 적이 있다(Wordsworth, 363).

4) 왓킨스의 “이와 같은 심리적 절대절명성”(27)이라는 말은 아놀드의 초기 상황에 대한 바이런 자신의 심정적 동일시를 간파한 것이다.

놀드의 처지는 기원(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현실로 이룩되는 낭만주의적 소외에 해당하며, 어머니의 눈에 들고자 애쓰는 아놀드의 노력은 자연과의 통합을 회복하고자 하는 낭만주의적 추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두 사람간의 관계가 낭만주의적 모티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바이런의 관심은 오히려 제1세대 낭만주의 시인들이 제시한 구원적 상상력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데 있다. 아놀드는 자기를 소외시킨 어머니를 위해 불편한 몸으로 손까지 다치면서 힘든 노동을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는 아들의 노동을 더욱 착취할 뿐, 그로부터 자기 존재의 토대를 구하면서도 그를 천대하고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고 구박한다.

이와 같은 모자 관계는 낭만주의를 비롯한 서양의 형이상학 철학의 기본적인 두 가지 공리적 전제를 부정하는 의의를 지닌다. 하나는 기원과 파생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버사는 어머니로서 아놀드의 육체적, 정신적 토대를 이루지만 생존을 위해 아놀드의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놀드가 어머니의 존재를 위한 토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버사가 아놀드의 추한 육체적 존재와 물질 노동에 대해 자기의 모성이 일방적이고 불변하는 특권을 지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물질 토대를 악으로 규정하여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초월 이데올로기의 위선적 모순이다. 이 모순은 버사편에서 보면 자신의 존재의 토대를 이루는 노동자(아놀드)를 공포와 악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그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철저히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자유주의 이념의 은폐된 모순을 이루며, 아놀드편에서 보면 자신에 대한 억압의 재생산 구조에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억압을 가중시키는 노동계급의 심화된 모순을 나타낸다. 아놀드가 자비로운 모성, 우호적 자연, 사랑의 신에 대해 신념을 갖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면 할 수록, 그는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더욱 자신의 소외를 가중시킬 뿐이다.<sup>5)</sup>

1812년 2월 27일, 바이런은 노동자들의 기계 파괴운동을 과격하게 진압하기 위해 주동자들의 사형을 입법화하려는 '기계파괴 방지법안'(the Frame-breaking Bill)에 반대하는 상원 연설을 한 바 있다. 이는 그가 『병신의 변신』을 쓰기 오래 전의 일이라는 했지만, 그 때 그가 행한 연설에 나타난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은 이 작품에 나타난 아놀드에 대한 인식과 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다.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폭도라 부릅니다. 극단적이고 위협하며 무식하다는 거지요. 당신들은 '머리가 여럿 달린 이 괴물'을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머리들을 몇개 잘라버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 우리는 폭도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당신들의 논밭에서 노동을 하고, 당신들의 집안일을 보살피며 — 당신들의 해군 병력을 이루고, 당신들의 육군 병력을 이루어 — 당신들이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 폭도들입니다. 무시당하고 불행해져서 절망에 빠지면 이들은 당신들에게 대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들을 폭도라 부르는군요! 하지만, 폭도도 종종 인간의 감정을 말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당신들은 [이들의] 목숨을 양말짜는 기계의 한 부품보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하려 들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Gunn, 111-113)

이 연설은 전체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의회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보기 드문 정확한 인식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을 사회적 토대로 하여 자기들의 존재가 가능해짐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존재의 토대를 억압하고 제거하려는

5) 자연과 모성을 낭만주의적인 우호적 초월자로 동일시하는 생각과, 그러한 낭만주의적 신념에 대한 바이런의 반성적 성찰로는 『해럴드 도령의 편력기』 제 2곡 37연과 제 3곡 44연 등을 아울러 참조.

당시 영국의 의회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바이런의 정치가로서의 안목은 아놀드와 버씨의 관계를 형상화하는 작가로서의 안목과 근본적으로 상통하는 것이다. 또, “무시당하고 불행해져서 절망에 빠지면” 민중은 지배체제에 대해 대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혁명의 역량과 폭력성이 다름아닌 지배체제의 자체적 모순에 의해 야기된다는 안목도 아놀드의 다음 독백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

아놀드: 나는 용맹성은 없어도 돼,  
 병신은 용감한 거니까.  
 병신의 본질은 가슴과 영혼으로 인류를 따라잡는 거야.  
 그래서 평등하게 되는 거야 —  
 그렇지, 다른 자들보다 우월하게 되는 거야. (609)

Arn. I ask not  
 For valour, since deformity is daring.  
 It is its essence to o'ertake mankind  
 By heart and soul, and make itself the equal —  
 Ay, the superior of the rest.

아놀드는 피를 흘리며 나무를 하던 도중,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성찰하고 삶의 정체성을 박탈당한 소외의 현실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게 되지만, 초기에는 어머니에 의해 규정되고 형상화된 “악몽”으로서의 이미지를 자신의 숙명적 정체로 인정하는 순화된 인식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소외의 현실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숙명적인 절대적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불만에 찬 아놀드가 이를 겪은 자살의 동기이다. 그러나 낯선 길손(Stranger)과의 대화를 통해 아놀드의 절망은 혁명적 욕구와 힘으로 전환된다. 위 대목에서 보면, 아놀드가 갖게 되는 도전의 욕구는 불구라는 조건과 공존하는 것이고, 바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폭력성인 것이다. 그 폭력은 무의식적 불만이 종전에 낭만주의적인 통합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던 상태로부터 의식화되는 순간이며 지배 논리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물적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길손은 『카인』에서 루시퍼(Lucifer)가 카인에게 하는 기능과 마찬가지로 아놀드의 의식을 일깨우는 教師的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노동 대중이 폭도로 변질된 원인이 그들 자체의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만들어놓은 지배층에 있다는 상원연설의 요지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이런의 안목은 프랑스 혁명의 폭력화에 대해 제1세대 낭만주의 시인들보다는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영국을 비롯한 구체제의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로부터 혁명의 전파를 우려하여 프랑스에 대한 고사작전을 수행한다. 반동 세력의 증폭된 우려와 압박이 로베스피에르 정부를 테러화시키는 데 일조한 면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혁명적 폭력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기보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바이런의 생각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공포라는 낱말을 영국에 전가하는”(Maniquis, 375)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혁명 이전의 아놀드에 대한 바이런의 심정적 동일시는 아놀드가 길손과 입장을 바꾸어 원래 못생긴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잘 생긴 용사 아킬레스(Achilles)의 형상으로 변신한 다음에는 아놀드의 행적에 대한 비판으로 바뀐다. 천대받던 민중적 위치에서 변신을 통하여 멋진 정복자 아킬레스의 모습으로 위상이 바뀌어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된 아놀드의 이후



행적은 “자기 이상화”와 “낭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절정”(Watkins 1983, 31)을 보여준다. 즉, 변신한 아놀드의 모습은 혁명의 관념화를 형상화한 것이며, 바이런은 길손과 아놀드의 대화를 통하여 아놀드가 지닌 관념성의 모순을 비판한다. 길손을 처음 본 순간 아놀드가 “혼령이냐 사람이냐?”(Page, 606)고 묻자, “한 사람 속에 공존하는 두 존재라고나 할까?”(606)라고 대답하는 길손 자신의 말에서 시사되어 있듯이, 길손은 아놀드의 타자적 분신(Doppelgänger)에 해당하며 아킬레스로 변신한 이후의 아놀드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비판하는 서술자적 기능을 한다. 길손은 아놀드의 혁명의를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와전된 방향에 대해 비판적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이제 바이런의 작가적 동일시의 대상은 아놀드에서 길손으로 전환되며, 바이런은 그를 통해서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하여, 용병들, 군국주의, ‘유혈과 영광,’ 그리고 세칭 왕이라고 하는 이른바 ‘경찰권’들에 대하여 빈정거리는 투의 실황 해설”(Barton, 209)을 한다.

불구였을 때 아놀드는 “모든 정신적인 아름다움”(Page, 608)의 가치와 “관념의 대리석”(609)이 자기의 육체적인 물적 조건을 억압하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신 이후에는 자기의 정체를 구성하던 물적 요소인 육체의 소외와 현실에 대해 책임을 방기한다. 그 결과 관념적 미와 사랑의 감정이라는 일종의 허위의식에 빠져 자기를 소외시켰던 지배자의 심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정복과 지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자기의 과거 육체를 교대로 취한 길손의 모습을 보고 “오, 끔찍하기도 해라!”(611)면서 외면하는 것은 제1세대 낭만주의적 혁명 이념의 자기 배반적인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바이런은 그러한 모순을 극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물적 현실인식이 결여된 혁명은 지배자를 위해 봉사할 뿐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놀드: [새로운 형상으로]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것이다! 오, 멋진 인생!

찬란한 영혼이여! 마침내 나도 그대를 느끼노라!

길 손: 잠깐!

네가 버린 옷은 어떻게 할까?

저 추한 혹 덩어리, 살 덩어리, 흙 덩어리를?

잠전까지 네가 입던 옷이었고 너의 정체였는데?

아놀드: 알게 뭐야?

늑대와 독수리한테나 가져간다면 쫓겨버려.

...

길 손: ... 어찌 되었든

저것은 수많은 날 동안 네 영혼을 지탱해주었잖아.

아놀드: 그랬지, 보석이 똥 무더기 속에 처박혀 있다가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야 황금 속에 박히게 된 셈이지. (611)

Arn. (*in his new form*) I love, and I shall be beloved! O, life!

At last I feel thee! Glorious spirit!

Stran. Stop!

What shall become of your abandon'd garment,

Yon hump, and lump, and clod of ugliness.

Which late you wore, or were?

Arn. Who cares? Let wolves

And vultures take it, if they will.

...

Stran. ... Whatso'er it be

It hath sustain'd your soul many a day.

Arn. Ay, as the dunghill may conceal a gem

Which is now set in gold, as jewels should be.

이처럼 관념적 오류에 젖어 있는 변신 이후의 아놀드가 지니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부르봉의 복고적 전쟁에 합류하여 개인의 영달과 욕심을 위해 로마(프랑스)를 침공하는 장면(2막 1장)에서 잘못된 전쟁의 명분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이는 바이런이 『돈 주안』에서도 맹공하는 4자동맹이나 신성동맹 같은 억압적 수호체제와 이를 이끌어간 카슬레이, 웰링튼, 메테르니히 등의 전쟁 지도자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에 다름아니다. 즉, 사랑과 미의 관념을 내세움으로써 현실적으로 자유 세력의 파괴와 구세력의 이익을 위해 살육전쟁을 정당화하는 관념적 자유주의 이념의 허울에 해당하는 것이다. 왓킨스는 바이런이 부르봉 전쟁과 아놀드의 관념적 허위의식을 통렬히 비판하고 현실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길손의 서술자적 기능을 통하여 “역사와 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1985, 128)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극 작품은 낭만주의적 예술과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가설들을 부당하고 음흉하며 위험한 것으로 치고 완전히 거부한다. 이 작품은 초월적인 구원적 권능자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부정하고, 그 대신 사회 현실이 우선한다는 생각에 단단히 토대를 둔 순전히 인간적인 안목을 제시해 준다. 바이런의 정치론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또한 바이런이 동시대 낭만주의자들과 얼마나 노선을 달리했는가를 보여준다.(1983, 37)

관념화된 혁명이념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자아의 완성을 함양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행동주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될 수밖에 없는 상상력이 애초에 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현실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모순을 노출시킨다. 바이런의 당면과제는 관념화된 혁명이념과 현실적인 반혁명 세력의 득세로 괴리된 상황에서 비롯된 우울, 절망, 고통, 반항 등의 암담한 시대적 정서를 극복하고, 혁명의 이념보다 혁명의 실천이 절박하게 요구되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상징화되고 초역사화된 혁명의 상을 역사현실로 복귀시킬 절실한 필요성은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역사적 세계관의 획득과정을 통하여 제시된다. 이 점은 바이런을 “자유주의 계열의 귀족적” 혁명가로 평가해온 그간의 비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시사한다.

### Ⅲ. 이른바 바이런의 한계에 대한 재고

켈살(Malcolm Kelsall)은 바이런의 정치적 입장을 혁신과 보수라는 휘그주의적 양가성으로 평가하면서 그 근거로 『돈 주안』 제9곡에서 서술되고 있는 노상강도 에피소드에 나타난 민중에 대한 바이런의 경멸을 들고 있다.

‘나는 민중에게 아침하지 않는다’고 바이런은 쓴 바 있다.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상강도의 에피소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서민도 지배자만큼이나 부패했다 … 강도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가? … 이 사건은 바이런이 급진주의로부터 분명히 결별했다는 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 그의 태도가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Kelsall, 173)

켈설의 견해는 민중을 경멸하는 바이런의 태도가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폭도의 지배로 규정하면서 민중의 입장을 교묘히 여과하는 휘그적 의회주의의 모순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혁명의 명분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천은 하지 않는 양면성이 당시의 의회주의적 개혁의 한계인데, 바이런의 혁명성도 그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켈설은 “다른 나라에서 자행되는 억압에 저항한다고 해서 영국내에서의 혁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헌법은 스스로 개혁하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개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용없는 개혁의 환상’으로 민중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다”(24)고 강력히 주장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휘그적 의회주의의 양면성과 모순을 지적하는 켈설의 타당성과 바이런에게서 보이는 자유주의적인 휘그적 귀족성의 면모를 전면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런의 경우 휘그주의를 뛰어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특히 그가 말기에 보여주는 급진주의적 면모는 중시되어야 할 텐데, 켈설의 바이런 평가는 바이런의 전 생애를 휘그주의적 한계안으로 가두어 보는 지나친 단순화의 소지를 내포한 것 같다. 더군다나 제 11곡 8-19연에 걸쳐 나오는 문제의 노상강도 사건에 대하여 켈설은 바이런 특유의 회극적이고 경박한 어조를 너무 진지하게 파악함으로써 오해를 한 감마저 있다. 켈설은 주안의 총에 맞아 죽은 노상강도 톰(Tom)을 바이런이 사치와 탐욕의 화신으로 그림으로써 민중적 공감을 자아내지 못하고 대신 도덕적 비난을 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켈설은 바이런 특유의 『돈 주안』식 어조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바이런이 노상강도를 좋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목의 회극적이고 가벼운 어조를 고려하면 톰의 과거 인생을 바라보는 바이런의 서술 태도가 결코 준엄한 도덕가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생전에 소외된 삶을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간 톰에 대해 연민과 애정이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바이런은 신성한 법치주의 국가라는 환상을 경직되게 실천하여 강도가 나타나자마자 무조건 쏘아버린 폭력을 행사하는 타락한 주안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지배적 폭력에 어이없이 희생당한 불쌍한 톰이 죽어가면서 손수건을 꺼내 “이걸 사라한테 전해줘!”(Steffan, 401) 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바이런이 독자와 톰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음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노상강도 톰을 그리는 바이런의 태도는 제16곡 61년부터 나오는 밀렵 소녀에 대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작가측에서 행해지는 심정적 동일시와도 일치한다. 노먼저택(Norman Abbey)의 주인인 헨리卿(Lord Henry)은 신흥 귀족으로 자유주의적인 휘그파의 귀족에 해당하는 전형적 인물이다. 가을이 되어서 그는 살찐 짐승들의 사냥을 재미삼아 즐기지만, 바이런은 “아, 당신들 밀렵자들이여, 농민들에게는 이것이 재미가 아니지”(461)라고 쓰고 있다. 헨리에게는 가을이 풍요롭고 감미로운 사냥의 계절이지만, 민중에게는 배고픔의 계절인 것이다. 붙잡힌 밀렵 소녀를 재판하는 헨리의 모습을 통해 바이런은 기득권층을 보호할 뿐, 먹을 것이 없어서 밀렵을 할 수밖에 없는 소녀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엄격한 “치안판사”(Justice of Peace)의 잔인성을 맹렬히 풍자한다. 이는 톰에 대해 가차없는 중형을 집행한 주안을 비

난하던 서술적 목소리의 연장이며, 민중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이념의 허구성을 공격하던 코베트(William Cobbett) 같은 당시의 급진주의자의 안목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코베트는 19세기 영국에서 자유의 구호가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부여된 자유란 썩어가는 노적가리를 바라보면서도 굶어서 죽느냐 아니면 좀도독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여 죽느냐 하는 양자간의 택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라고 꼬집은 바 있다(Cobbett, 82-83).

바이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창백하고 야위기는 했어도 영웅적인 당당한 소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녀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고, 재판받는 범법자가 재판하는 판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견해까지도 암시한다. 이는 상원에서 행한 첫연설에서 기계 파괴에 가담한 범법자 노동자들이 따지고 보면 “그들을 대표한다는 의원들보다 단지 덜 유죄일 뿐”(Gunn, 109)이라고 보았던 초기 바이런의 민중관의 연속이다. 앞에서 켈설은 바이런이 휘그적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켈설이 말하는 의회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헨리경이며 바이런은 켈설이 바이런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방법과 내용으로 오히려 헨리경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적어도 『돈 주안』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켈설이 바이런의 입장을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유와 자영농민들의 친구지만  
정부에게도 역시 친구인 ...

...

그[헨리]가 '자유롭게 고백' 한단다(이 구절이 어느 나라 말이지?  
영국말이던가? 아니야, 의회의 구호일 뿐이지) ... (Steffan, 541)

A friend to freedom and freeholders, yet  
No less a friend to government ...

...

He was 'free to confess' (Whence comes this phrase?  
Is't English? No, 'tis only parliamentary) ...

켈설은 휘그파가 왕권과 민중 사이에서 때로는 진보적이면서도 때로는 보수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설명한다. 명예혁명 당시에 “민중은 우리의 군주”를 구호로 내걸었고 “민중의 친구들”임을 자처했지만, 휘그 정치가 존 윌키스(John Wilkes: 1727-1797)의 경우처럼 민중 소요가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진압에 앞장서서 왕의 친구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Kelsall, 14-18). 켈설이 바이런의 급진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자유주의적 휘그주의와 의회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켈설의 입장과 바이런의 입장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로버트 에스카피트(Robert Escarpit)는 위에서 살펴본 바이런의 상원 연설을 만일 마르크스가 보았다면 마르크스가 바이런을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말한다(Escarpit, 53). 근대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급진적 사회 이론이 발달하기 이전이었다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면, 바이런의 혁명관에서 발굴할 수 있는 유물론적 급진주의자로서의 가능성은 당시로서 상당한 사회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종전에 귀족적 개혁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바이런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그가 같

수록 점점 더 급진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켈설 자신은 이점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바이런의 말기 태도는 켈설이 말하는 “완전한 민주주의”(absolute democracy)를 당시에 지향하는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용문헌

- Barton, Anne. “Don Juan Transformed.” *Byron: Augustan and Romantic*. Ed. Andrew Rutherford.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90.
- Birkner, Gred. “The Platonic Tradition and Literary Innovation in Byron’s Poetry.” *Romantic Reassessment: The Hannover Byron Symposium 1979*. Ed. James Hogg. Salzburg: Institut für Anglistik und Amerikanistik: Universität Salzburg, 1981.
- Bloom, Harold. “The Internalization of Quest-Romance.” Ed. *Romanticism and Consciousness: Essays in Criticism*. New York: W.W. Norton, 1970.
- Cobbett, William. *Rural Rides*.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8.
- Escarpit, Robert. “Byron and France: Byron as a Political Figure.” *Byron’s Political and Cultural Influence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A Symposium*. Ed. Paul Graham Trueblood.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c., 1981.
- Gunn, Peter, ed. *Byron: Selected Pros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72.
- Jack, Ian. “Byron: Too Sincere a Poet.” *The Poet and His Audience*. Cambridge: Cambridge UP, 1984.
- Kelsall, Malcolm. *Byron’s Politics*.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7.
- Maniquis, Robert M. “Holy Savagery and Wild Justice: English Romanticism and the Terror.” *Studies in Romanticism*, 28(Fall 1989): 365-395.
- Marchand, Leslie, ed. *Byron’s Letters and Journals*. Vol. 3. London: William Clowes & Sons Ltd., 1974.
- Martin, Philip W. *Byron: A Poet Before His Public*. Cambridge: Cambridge UP, 1982.
- Page, Frederick. *Byron: Poetical Works*. Oxford: Oxford UP, 1970.
- Ruddick, William. “Byron and England: The Persistence of Byron’s Political Ideas.” *Byron’s Political and Cultural Influence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A Symposium*. Ed. Paul Graham Trueblood.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c., 1981.
- Russell, Bertrand. “Byron.”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nd its Connection with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Present Day*. 1946; rpt.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9.
- Steffan, T. G., et al. eds. *Lord Byron: Don Jua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77.

Thorslev, Peter L. "Post-Waterloo Liberalism: The Second Generation." *Studies in Romanticism* 28(Fall 1989): 365-395.

Ward, Jay A. *The Critical Reputation of Byron's Don Juan in England*. Salzburg: Institut für Anglistik und Amerikanistik; Universität Salzburg, 1979.

Watkins, Daniel. "Byron and the Poetics of Revolution." *Keats-Shelley Journal*, 34(1985): 95-130.

\_\_\_\_\_. "The Ideological Dimensions of Byron's *The Deformed Transformed*." *Criticism* 25. 1(Winter 1983): 27-39.

Wordsworth, William. *The Prelude*. Eds. Jonathan Wordsworth *et al.* New York: W. W. Norton, 1979.